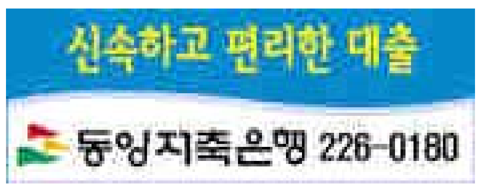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790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1월 13일 (음력 10월 4일) 화요일

금형센터·클러스터 등 기반 구축했더니…

경남·수도권 기업 속속 광주 이전

창원특수강 등 18개 업체 둥지 틀기로

경남 창원의 금형 관련 기업 3곳이 광주에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금형·전자·자동차부품 관련 18개 기업이 광주에 새로 둥지를 튼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금형소재 기업인 ㈜창원특수강 등 18개 기업과 60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면 81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생긴다.

이들 기업은 경남에 본거지를 둔 금형관련 3개 기업과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중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4개 기업,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2개 기업, 광(光) 관련 벤처기업 등이다. 경남지역 기업이 광주에 집단투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특수강, 우진정밀, 나우텍㈜ 등은 경남 기업 3곳은 이미 평동산단 금형집적화단지에 1만㎡의 공장부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으며, 내년 중에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예상 인원은 95명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 금형기업에 지금보다 10~30% 싼 가격에 금형소재인 특수강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260여개 광주지역 금형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금형기업의 광주유치는 광주시의 금형산업 집중 육성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 '금형시험생산센터' 구축 ▲금형 클러스터 조성(평동산단 내 7만9천㎡) ▲금형전문인력 양성 등 모든 공산품의 기초가 되는 금형산업에 공을 들인 결과였다. 여건만 갖춰지면 어떤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케이스다.

> ▲금형(金型·metallic pattern)=같은 형태와 질의 제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금속재료로 만든 틀. 공산품의 80%가 금형을 이용해 만들어진다.

창원특수강의 문경식 대표는 "광주시가 금형산업에 대해 집중육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조만간 대한민국의 모든 금형관련 업체들이 광주로 모일 것이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엔하이테크㈜는 작년 7월 광주에 임대공장을 마련해 시험생산을 했다가, 광주의 생산율이 본 공장보다 30% 높고 불량률도 훨씬 낮아 50억원을 투자해 15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올해 2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 회사 박호진 대표는 "공무원들이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고, 우수한 종업원, 광기술원·생산기술원 등 탄탄한 연구기반이 광주의 매력"이라고 밝혔다. 또 경북의 변압기 생산업체인 ㈜EMC코리아는 한국전력 이전에 앞서 시장 선점 등을 위해 70억원·100명 규모의 공장을 평동산단에 짓기로 했다. 벌써 한전 이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강왕기 광주시 투자유치기획단장은 "자동차, 전자, 금형, 광산업 등 첨단산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반과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으니,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올해만 71개 기업을 유치, 1천900억원 투자·1천485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봤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와 정동영 대선 후보, 민주당 이인제 대선 후보와 박상천 대표(오른쪽부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합당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민주 합당·단일화 선언

23~24일 여론조사 통해 단일후보 선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12일 4자 회동을 갖고 당 대 당 통합과 후보단일화를 함께 이루는 '원샷 통합'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1월, 참여정부 주도 세력의 새천년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분열됐던 범여권은 4년만에 단일 정당으로 복귀하면서 12월 대선에서 막판 역전극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충일 민주신당 대표와 정동영 후보,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이인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동을 갖고 '통합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정당의 명칭을 가칭 '통합민주당'으로 정했으며 정책 노선은 '질 좋은 경제성장과 서민·중산층 보호를 병행 추진하는 중도개혁주의'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중앙위원회와 각종 의결기구를 동수로 구성하고 오는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합당 등록을 마치는 한편, 전당대회는 18대 총선 이후인 내년 6월 개최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 양당은 오는 20일 이전에 TV 토론을 2차례 자유토론 방식으로 개최한 뒤 오는 23~24일 사이에 가상대결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단일후보가 되지 못한 후보는 선대위원장을 맡고 대선 이후 '국정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총무인사팀, 정강정책팀, 당헌·당규팀, 후보단일화팀 등 4개의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 이번 주 내에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수엑스포, 동북아 평화 기여"

盧대통령, BIE 회원국들에 지지 호소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홍보 뉴스레터'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이 여수를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2012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의 해양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여수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지구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역량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무엇보다 한국의 첨단 정보기술(IT), 최고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친절한 우리 국민은 참가자 모두에게 만족을 전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11월26일(프랑스 현지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여수가 선정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昌 출마, 正道 아니다"

박근혜 사실상 이명박 지지…내분 일단 봉합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2일 이회창 전 총재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분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후보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는 반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는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명박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적극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박 전 대표는 이날 자문교수단과의 오찬을 위해 삼성동 자택을 나서던 중 기자들에게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처음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전 총재가 출마한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굳이 만날 필요가 있느냐" "승자가 공천권을 갖고 무소불위로 휘둘러야 한다는 말이냐" "그야말로 구태정치, 무서운 정치"라고 말하는 등 아직도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으로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 재창출, 좌파정권 집권저지에 뜻이 같으므로 앞으로 합심해서 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박 전 대표)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社告

제28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김흥식 전 장성군수의 '주식회사 장성군'

1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오는 15일 오후 6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 28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흥식 전 장성군수가 강사로 나서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1월 15일(목) 오후 6시
- 장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주제 :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 이야기
- 강사 : 김흥식 전 장성군수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20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지역민께 드리는 자성의 말씀

대주그룹 임직원 일동은 최근 저희 그룹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대주그룹이 지난 30여년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배려와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역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며, 성장의 과실을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룹으로 인해 촉발된 작금의 상황은 지역사회에 불안과 우려를 던져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못해 사정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받았으며, 이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비단 이번 일뿐 아니라 저희 그룹의 성장사를 놓고 볼 때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았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장과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충분히 이행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간의 크고 작은 과오와 불찰이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 저희들의 뼈아픈 자성입니다. 이에 저희 대주그룹은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共生)경영'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대주건설의 1천여 협력업체를 포함, 저희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이 성장의 이익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특히 정상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대한조선 해남조선소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실질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무등산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각종 복지사업 역시 일반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고통의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대주그룹이 시민사회와 고락을 함께 하는 진정한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룹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과 비판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1월 13일 대주그룹임직원일동드림